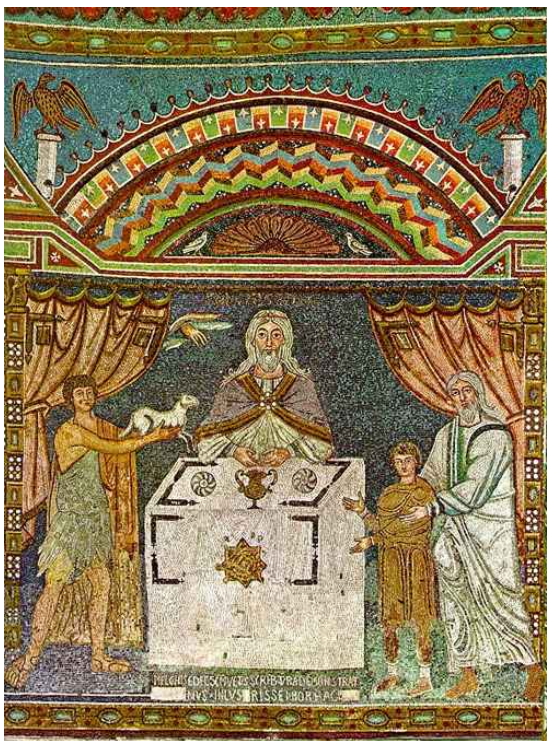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 예표로서의 멜기세덱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아벨(좌), 멜기세덱(중), 아브라함과 이삭(우)
(모자이크, 클라세의 산타돌리나레 성당, 라벤나)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구약에 최초로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이다. 이후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은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나온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살렘의 왕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하였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단까지 쫓아가 쳐부수고 사로잡힌 자들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 같은 사실이 후대에 각광을 받게 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이었다는 점에 있다. 멜기세덱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희망(Ha-Tikvah)했던 가나안땅에 나라세우는 일을 꿈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는지, 유대인들의 성지인 살렘의 왕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왕권과 신권을 모두 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통치하는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의 표상에 가장 적합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시편 110편의 저자가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못 나라를 심판하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노래한 것에서 증명된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역대기적 이상(理想)이 충만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표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예루살렘성전의 지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라고 확신하였다(6:20).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를 담당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10번이나 언급하였다.

창세기 4장 26절은 셋의 아들 에노스와 동시대 사람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다고 적고 있다. 이후 아브라함이 야훼의 이름을 불렀고, 야훼를 위하여 제단도 쌓았다(창 13:4, 21:33). 이 무렵 아브라함은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품었고,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의 희망을 성취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고난 직후인 14장에 아브라함이 이끈 군사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메시아적 승리 기사(記事)와 미래의 이스라엘의 이상적 수도인 살렘의 왕이자 야훼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영접하여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기사가 실렸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쌍방이 체결한 조약을 공고히 하는 의식이였다. 이로써 창세기 13-14장과 시편 110편은 아브라함, 멜기세덱, 다윗을 통해서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를 그려주었다.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야훼신앙의 뿌리인 아담, 에노스, 노아, 셈의 후손으로 본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언제부터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상으로 유대인들의 뇌리에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창세기에 소개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추정하였고, 그 내용이 역대기적인 것은 다윗 왕국이 영원하기를 염원한 시편 110편의 내용이 증명한다. 시편의 저자는 왕권과 신권을 가진 왕이,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못 나라를 심판하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릴” 것이라고 노래한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어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윗이 썼다는 뜻은 아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의 시'로 번역된 '레-다비드'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레-다비드'를 '다윗에 의한'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다비드'는 '다윗에 관해서라는 뜻도 갖고 있다(예: 시 3, 7, 18, 34, 51-52, 54, 56-57, 59-60, 63, 142). 만일 시편 110편이 "다윗의 시"가 아닌 '다윗에 관한 시'라면, 이스라엘이 절정기를 구가한 다윗왕국이 회복되어 영원하기를 바라고, 왕권과 신권을 한 몸에 지닌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희망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희망 곧 멜기세덱처럼 왕권과 신권을 겸비한 이상적인 메시아, 곧 다윗 왕권의 실패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레위 사제권을 뛰어넘는 장차 올 영원한 메시아가 희망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유배기 또는 고토에 돌아온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유배로 인해서 또 다시 떠돌이와 노예가 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 중심의 다윗왕국과 예루살렘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회복되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역대기적 희망(Ha-Tikvah)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걸었다. 그 표상으로 멜기세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유대교의 모쉬아크상과 겹치는 십판주 메시아
최후 심판(미켈란젤로, 1536,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유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는 희망을 최초로 마음에 품었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왕권만으로는 왕국을 영속시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역사를 통해 배웠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에 다 모세의 신권까지 지닌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발전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상적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다.

그러나 신약성서 저자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왕권과 신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왕권과 신권의 예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대기 이념적 희망이 100퍼센트 성취되었다고 믿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7:3)는 말로써 멜기세덱의 존재에 신비성을 덧입혔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의 신분과 이름을 풀이하였다. 저자는 멜기세덱의 신분을 창세기 14장을 근거로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밝혔다.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고, 살렘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라고 풀어주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므로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브라함과 레위 사제들보다 높다고 하였다. 레위 사제들이 멜기세덱보다 신분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이 장차 올 메시아를 희망한 노래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서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4절)는 것을 근거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시편 110편 5-7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못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에 근거하여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강림하시면 철장으로 향아리를 깨뜨리듯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은 아직 한 번도 나타난바가 없는 장차 올 모쉬아크가 최후 심판으로써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실 것이라고 이해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르고, 복음이 율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예수님이 레위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체사장이 되신 이유를 시편 110편 4절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시편 110편의 내용은 이렇다.

야훼께서 내 주군(to my master)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주군의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부터 뻗쳐 주실 것이니, 주군께서는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십시오. 주군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주군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주군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떨기세택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군의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의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치켜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1-44절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구약성서의 성구들을 유대교인들이 이해한 문자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 예표적 모형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은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왜곡했거나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던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의 문자적 의미를 몰랐거나 오해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영적, 예표적, 모형적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 의도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유대교 랍비들이 신약성서의 잘못된 구약성서 인용으로 꼽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0편이다. 유대교 랍비들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잘못 인용했거나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약성서를 문자적으로만 읽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의 인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는 유대민족사에 관련된 문자적 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적 예표적 모형적 의미로 읽어야 할 이유가 없고, 성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삼위일체 신앙을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신약성서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구약성서는 문자적 의미 그 이상의 깊은 영적 예표적 모형적 의미가 담겼다고 믿고 해석함으로써 유대교라는 소수민족종교를 그리스도교라는 전 인류를 위한 종교로 발전시켰다.



아벨의 양과 멜기세덱의 배방과 포도주(모자이크, 주후 520년경)
성 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 라벤나 이탈리아)
제단 위쪽에 하나님의 손과 제단보에 수놓은 멜기세덱의 표장을
볼 수 있다. 표장(seal)은 팔각 별 중앙에 둥근 빛을 담은 형상이다.

시편 110편의 표제는 ‘미츠모르 레-다비드’(Mizmor l’David)이다. ‘미츠모르’(Mizmor)는 ‘노래’(a song)란 뜻이고, ‘레-다비드’(l’David)는 ‘다윗의,’ ‘다윗에 의한,’ ‘다윗에 관한’이란 뜻이다. 따라서 ‘다윗의 시’란 표제는 ‘다윗의 노래’ 또는 ‘다윗에 관한 노래’란 뜻이 된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저술했으므로 ‘다윗의 노래’이고, 그 노래를 성전예배 때 레위인 성가대가 불렀으면 ‘다윗에 관한 노래’가 된다.

그러므로 시편 110편 1절, “야훼께서 내 주군(to my master)께 말씀하시기를”에서 “내 주군”은 유대교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다윗 자신을 지칭한 것일 수 있다. 특히 레위인 성가대가 불렀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은 자신도 모

르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지칭했을 수 있다. 이 후자를 장차 올 메시아라고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만일 시편 110편이 다윗이 아닌 바벨론에 유배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페르시아제국 초기나 그 이후에 고토에 돌아와 재건에 힘썼던 누군가에 의해서 쓰인 ‘다윗에 관한 시’라면, 다윗은 모세와 함께 장차 올 메시아의 선구자였으므로 “내 주군”은 장차 올 메시아(그리스도)를 희망한 노래였을 수 있다. 시편 110편 전체 내용이 역대기 이념적 메시아사상을 담고 있어서 더욱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를 근거로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또 12절에서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고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멜기세덱 계열은 아론 계열이 아니고, 성전 봉사를 해본 일도 없으며, 심지어 야곱의 후손도 아니다. 그런데도 야훼께서는 멜기세덱 계열의 사제직을 인정하셨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고, 성전봉사를 해본 일이 없지만, 이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설명한다.



멜기세덱의 표장(seal)과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
성 바돌로매 영국성공회 교회(터네시)
네 모서리에 라틴어로 INRI(라틴어: IESVS·NAZARENVS·REX·
IVD ORVM, 유대왕 나사렛 예수)를 수놓았고, 바깥 원에 라틴어로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수놓았으며, 멜기세덱의 표장인
팔각 별 중앙에 십자가가 깎여와 어린양을 수놓았다.

게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서 아론 계열의 법을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라고 폄하하였고, 멜기세덱 계열의 법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치켜세웠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18-19절에서 “이전의 계명은 언약하고 무익하므로 폐지되었는데, 이는 율법이 아무 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저자는 “그 대신에 더 좋은 희망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저자는 20절 이하에서 그 더 좋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1절에서 시편 110편의 “내 주군”(to my master)을 명백히 오실 자 메시아를 지칭한 것이고, 그 주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야훼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22

절에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선언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2-3절에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였다. 이는 멜기세덱이 장차 올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예표란 뜻이다. 멜기세덱이 장차 올 자로 예언된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분의 대제사장 직책은 영원하여 퇴직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피조물이므로 그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그 사제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7장 23절에서 말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7장 25-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하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언약함을 지닌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7:22)이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8:6)이시며,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3:1)고 권면한다.